

빛살무늬토기·무령왕릉금관... '한류 비밀코드'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류미학

최경원 지음

“가령 옛 채색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방색을 운운합니다. 그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색은 눈의 시신경 작용과 관련이 큼니다. 이것을 빼고 색을 설명하는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색채이론 중에서는 3원색을 기본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범주로 설명하는 현대 색채이론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가 소중할수록 이런 가장 과학적인 논리로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형태의 경우에도 ‘구도’나 ‘비례’, ‘대비’와 같은 기준을 가진 현대적 조형이론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본문 중에서)



주먹도끼, 빛살무늬토기, 청동동검, 금동대향로, 무령왕릉금관, 백제의 연꽃와당... 시대를 초

월해 오늘날에도 인정받는 우리의 유물이다. 그렇다면 한류의 비밀코드는 무엇일까?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부터 오늘날 IT까지 적용할 수 있는 한류의 기원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디자인 연구소 소장이자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경원 작가가 펴낸 ‘한류 미학’이 그것. 책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원’이 무엇인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역사 속 삶의 지혜를 우리의 시각에서 유물에 투영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전망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유물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논리나 언어보다 문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 까닭이다. 저자가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유물을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

저자는 주먹도끼를 ‘구석기시대의 맥이버칼’로 묘사한다. 인체공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도구였다는 의미다. ‘한쪽은 칼처럼 거의 굴곡이 없는 선에 날이 서 있고, 반대편은 지그재그로 울퉁불퉁한 선에 날이 선’ 구조는 세 가지로 디자인된 형태다. 그만큼 용도가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빛살무늬토기는 최고의 디자인이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시각과 지성을 압도하는 역삼각형 구조는 주거지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생존에 필요한 물가와 인접한, 다시 말해 모래밭 환경에 적합한 그릇이다.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디자인된 캐릭터’인 고구려 사신도 벽화 또한 걸작이다. 벽화는 곡선미와 아울러 뛰어난 조형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강서대묘 사신도에 드러난 곡선의 아름다움은 일



신라시대 금귀걸이

품이다.

“모두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재적인 힘을 표출하는 선들도 있고 내재적인 힘을 응축하는 선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곡선을 자유자재로 참 잘 다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금관은 또 어떤가. 저자는 “어쩌면 망한 백제의 영혼들이 자신들이 역사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힘을 모아 우리에게 남겨준 타임캡슐”이라고 상



정교하고 세련된 솜씨를 자랑하는 백제 금동신발(왼쪽)과 백제 조형미를 대표하는 화려한 금동대향로. <더블북 제공>



김군을 찾아서

강상우 지음

“역사의 시간을 현재의 절박한 시선으로 살아 내려는 시도”(흥은 미 영화평론가), “한국 다큐멘터리의 전환점”(김봉석 영화평론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1980년의 ‘진실’이 있다는 것”(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위의 표현은 ‘김군’에 쏟아진 찬사이다. 다큐멘터리영화 ‘김군’은 2014년 봄에서 2020년 봄까지 7년여의 시간 공들인 작품이다. 시민군, 목격자, 연구자, 활동가 등과 나눈 인터뷰 등이 녹아 있다.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이 쓴 ‘김군을 찾아서’는 5월 광주를 회고담이 아닌 현재 시제로 다가가는 치열한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첫 장편 ‘김군’으로 2018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019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광주사람들에게는 ‘김군’이라 불리지만, 보수 논객과 우익 커뮤니티 구성원에게는 ‘제1광수’로 불리며 광주항쟁을 주도한 북한 특수군으로 몰리는 한 남자를 주목한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럼에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이름들과 기록되거나 삭제된 비공식 서사의 주인공으로 확장된다.

저자는 뒤로 밀려나 있던 무장 시민군의 이미지가 30여 년만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지만원 측의 북한군 개입설로 본다. “사진이 촬영된 맥락을 알지 못한 채 프레임에 담긴 이미지만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모와 군복처럼 보이는 의상을 착용하고 총을 든 김군을 군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책에는 기록이 다 말해줄 수 없는 부분, 다시 말해 말할 자격을 얻지 못한 ‘이름들’의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무심히 삭제된 비공식 서사들이 생명력을 지닌 이이다.

<후마니타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넥스트 티처

김택환 지음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과제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가르칠 것인가?”일 터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의 문제와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한 인재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문제해결 능력’, ‘창의 역량’, ‘협력 정신’, ‘글로벌 마인드’가 바로 그것. 지금의 제도권 교육은 인구사회학적으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언택트 시대 우리나라의 교육과 새 시대의 교사론을 다룬 책이 발간됐다. 김택환 경기도 특임교수가 펴낸 ‘넥스트 티처’가 그것. 국가 비전 전략가이자 4차 산업혁명과 독일 전문가인 저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유형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협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일선의 의사와 간호사, 방역 담당 공무원, 모바일과 은행 카드사의 협력까지 융복합된 기술과 협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끼와 적성을 발굴하는 개별화 학습 전환의 중요성을 들었다. 앞으로의 교육은 ‘티칭’이 아닌 ‘코칭’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실험 등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혁신 기술에 대한 역량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입시와 사교육, 대학 등록금을 철폐하는 제도적인 교육혁명”이 함께 뒷받침돼 교육현장이 행복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본다.

<에듀니티·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류세 인간의 시대

최평순·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지음

“20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가 46억 년을 버텨온 지구를 파괴했다.” 지난해 6월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프라임-인류세’ 편이 ‘인류세:인간의 시대’로 출간됐다.



인류세는 20만 년 전 등장한 생물종인 인류가 지구 환경 전체를 바꾼 시대를 칭하는 용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파울 크뤼첸은 2000년 열린 한 과학 회의에서 ‘인류세’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새로운 지질학적 용어를 통해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역사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인류세의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시대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일까?

환경·생태 전문 PD 최평순과 EBS 1TV ‘다큐프라임’ 제작진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방방곡곡을 다녔다. 이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분량상 방송에 담지 못했던 과학적 내용, 촬영 뒷이야기 등을 담았다.

제작진은 덴마크 닐스보어 연구소의 빙동고의 빙하코어와 인도 마우물루 동굴의 석순에서 지질시대의 경계를 결정하는 증거를 찾는다. 하와이에서는 인류세가 낳은 새로운 암석을 발견했으며, 샌프란시스코 바다에서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네덜란드 청년을 인터뷰한다.

또 ‘대한민국 또한 명백한 인류세 현장’임을 밝히며,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고무줄을 먹는 울산 태화강변의 폐가마구, 플라스틱 라벨을 먹고 죽은 서해의 바다거북 등을 찾았다. 이밖에 거제도 해변의 갯지렁이가 플라스틱 부표를 분해하는 모습 등은 인류세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해나무·1만6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병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타이거즈 공식치과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학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